

보성 확진환자 잠복기 22일 종료...추가감염 이번주가 고비

전남도 관리 대상자 634명...152명 검사 모두 '음성'

음성도 잠복기까지 격리...8명에 긴급생계비 500만원

전남도가 보성군 메르스 확진 환자 A(64)와 밀접접촉한 가족, 직장동료, 마을 주민 등 45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주가 A씨에 의한 추가 감염 여부를 가리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보성군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

기는 오는 22일까지로 이번주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3시 현재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모두 634명으로 자택격리자가 302명, 병원 격리자 1명, 매일 2차례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331명이다.

전남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한 접촉자 26명, 보성 확진환자 접촉자 47명, 유증상자 79명 등 152명에 대해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

지난 6일 보성 확진환자가 참석한 결혼식에서 폐백을 도와준 광양 거주 50대 여성이 발열 등 메르스 유사증세를 보여 지난 14일 목포병원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A씨를 포함해 2건이다.

전남도는 또 A씨가 증세를 보이기 전인

지난 2일 오전 7시45분 광주시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상경해 지하철로 서울삼성병원에 도착하는 등 A씨의 이동 과정에서 접촉한 버스 및 지하철 탑승객의 명단을 파악중이다.

서울행 버스에는 A씨와 운전기사 등 모두 13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로 이동한 버스의 탑승 인원은 현금 결제 등으로 인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통보 받은 광주시는 고속버스에서 A씨와 밀접 접촉한 6명을 파악해 자택격리 조치하고 탑승 인원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밀접 접촉한 자택격리자 45명 중 36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남도는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하더라도 잠복기까지는 격리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A씨가 주로 활동했던 전남 동부권에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메르스 검사를 요청하면 실시하지만 관련성이 없으면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자택격리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8명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495만2000원을 지급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메르스 여파로 전면 휴업에 들어갔던 보성지역 55개 학교 가운데 54개 학교가 16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숙형중학교인 보성 용정중학교만 하루 늦은 17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전남대병원, 호흡기질환 선별진료 15일 오전 메르스 관련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을 찾은 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응급실 앞 임시 천막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을 통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해 진찰하는 병원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병원·순천중앙병원도 '안심병원'

4곳 추가돼 광주·전남 11곳

메르스 감염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조선대학교병원 등 74곳이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안심병원' 2차 접수 결과 전국의 의료기관 74곳이 신청해 이 병원들이 16~22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지난주 1차 접수를 통해 운영을 시작한 87곳에다 이번 2차 접수 병원 74곳을 더해 모두 161곳으로 늘어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병원과 전남지역 내 순천중앙병원, 해

남병원, 전남중앙병원 등 4곳이 추가돼 총 11곳이 됐다.

지난 14일에는 광주에서 전남대학교병원과 서광병원 2곳, 전남에서는 성가톨릭병원(순천), 세안종합병원(목포), 순천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등 5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질환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 치료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메르스 포털(www.mers.go.kr)이나 대한병원협회 웹사이트(www.k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슬로바키아 격리입원

한국 남성 '음성 판정'

고열과 설사 등으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의심을 받았던 한국인 30대 남성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박상훈 대사는 14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면서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가 계속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의 혈액을 4차례 검사한 결과 3차례는 음성이 나왔으나 1차례는 양성이 된 기준치 이하인 '불명확한 상태'로 판명됐다고 박 대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 대형마트 매출 20%·KTX 이용 37% '뚝'

여행·외식업계 직격탄...도, 피해지원 상담창구 설치키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전남도내 지역 내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매출이 급락하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 여행·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회전반적인 불안심리로 인해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피하면서 서민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15일 "메르스 조기종식 및 과도한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여수·순천의 대형마트 이용객이 평년 대비 15~20%

감소했으며, 주요 전통시장 이용객도 약 30% 줄면서 매출이 20% 떨어졌다. 국내외 관광객 1만8751명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열차 이용객도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의 아쿠아 플라넷 입장객 및 유람선사 이용률 지난달 대비 각각 60%·70% 감소, 디오션 리조트 예약 취소율 50%, 순천시 순천만 관광객 30~40% 감소,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6월 교육 7건(400명 참석) 취소 및 25건(700여 명) 연기, 보성군 콘도·휴양림·리조트 예약 취소율 30~50% 등의 피해가

현실화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상생회의소, 상인회 등과 협력해 피해상황 조사, 각종 자금 지원 및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남도 중소기업과,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종문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민관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관광업에 720억원 특별융자

문광부 외국인 관광객 보험 개발...최경환 "필요하면 추경 편성"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한국관광안심보험'도 개발한다.

김 중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관광수요가 줄어 경영이 악화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전체 융자 규모는 메르스 사태로 특별 배정된 400억원과 하반기에 이미 배정됐던 320억원 등 모두 720억원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직

후 실시했던 500억원 규모의 융자보다 4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융자의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제한되며 한도는 10억원, 대출금리는 연 1.5%(고정금리)다. 2년 거치·2년 분할상환이다.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역신로 특별보증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관광업 종사자가 유급 휴직할 경우 최대 180일간 월 급여의 3분의 1~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판단한 뒤 (하계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되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제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메르스 사태의 진화 시기에 대해선 "15일, 16일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우리 예측대로 큰 불이 잡히면, 산발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 확산 사태나 큰 파문은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6. 16(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상반기 부동산 시장 결산 및 하반기 전망
2.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출 분석 및 공개
3.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4.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5.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6. 소액투자도 월세받는 비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자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자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자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